녹색연합 임원 소개

○ 상임대표

조현철

1959년생
현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현 사단법인 꿀잠(비정규노동자의 집) 이사장
현 서강대학교 교수(신학대학원)
현 녹색연합 공동대표

○ 공동대표

박그림

1948년생
전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전문조사원
현 설악녹색연합대표
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현 녹색연합 공동대표

원정

1956년생
전 경남 창원 성주사 주지
현 맑고 향기롭게 경남지회장
현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
현 녹색연합 공동대표

윤정숙

1958년생
전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전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현 우분투 재단 이사
현 녹색연합 공동대표

김은정

- 1969년 생
- 번역 프리랜서
- 대전기후변화대응 시민전문가
- 현 대정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 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우경선

- 1968년 생
- 녹색법률센타 소장 (2006년~2018년)
- 법무법인 자연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도담 대표 변호사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감사

배영근

1976년생
전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현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현 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지원변호인단

김현민

1964년생
공인회계사/세무사
전 PwC 컨설팅 회계 자문
전 삼일제약/상아제약 회계 감사
현 한국에너지재단 회계/세무 자문
현 (사)우리들의 눈 감사
현 안세회계법인 이사

○ 사무처장

윤상훈

1972년생
전 부산비엔날레 사무국 홍보팀장
전 녹색연합 정책실장
전 녹색습지교육원 사무국장
전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현 녹색연합 사무처장

녹색연합 활동의 주요 방향

1) 녹색연합 4대 강령

녹색연합 본부 사무처, 지역조직, 전문기구는 동일한 하나의 가치체계에 따라 활동함. 녹색연합의 기본 가치는 4대 강령에 근거함

1) 생명존중 : 자연과 생명의 권리, 생명윤리, 자본주의 전복의 욕망, 생태감수성
2) 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 : 난개발 반대, 생물다양성, 녹색소비, 에너지전환
3) 비폭력 평화의 실현 : 전쟁/폭력과 차별 거부, 평화통일, 미래세대, 지속가능성
4) 녹색자치의 실현 : 환경정의, 녹색 공동체를 향한 자치, 공동체의 공공성 구현

2) 다섯 가지 범주

녹색연합의 활동은 아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

1) 물 : 4대강 재자연화, 먹는 물, 순환과 재생
2) 토양 : 토양/지하수 오염, 위해성 평가
3) 기후에너지 : 기후변화-대기/미세먼지-에너지전환, 탈석탄화력
4) 화학물질 : 유해 화학물질, 플라스틱, 폐기물
5) 자연생태계 : DMZ-백두대간-(연안해양),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 그린벨트

3) 녹색연합 활동, 세 가지 방식

녹색연합은 현장조사와 캠페인에 강점이 있으나 법/제도화에 상대적으로 집중하지 못함. 현실주의자로서 녹색연합은 제도권 기반의 법과 제도를 바꾸며, 이상주의자로서 녹색연합은 제도권을 뛰어넘는 녹색의 대안을 제시함

1) 모니터링과 캠페인 : 현장을 기본으로 회원/시민과 함께 하는 운동
2) 법과 제도화 : 기존 제도(국회 입법, 행정계획 등)를 활용한 문제 해결
3) 대안 제시 : 대안문명으로서의 녹색생명운동, 녹색사회를 향한 대안 제시

4) 목표를 향한 네 가지 단계

녹색연합은 현장에서 기법(how-to)을 기술하는 것보다 그 이유(why)를 먼저 확인함. '의미'의 맥락을 잡고 '재미'의 특이성 생산을 팽팽한 긴장으로 유지함. 녹색연합이 바라는 특정 목표를 가정하고 또한 가정에 의심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펼침

1) 문제인지 : 하나의 사태를 문제로서 인지하는 단계(기획, 제보, 언론 등)
2) 현장확인 :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단계(현장조사, 정보공개, 보고서 등)
3) 인식확산 : 사회적으로 문제를 확산하는 단계(보도자료, 캠페인, 기획 소송, 온라인 펀딩 등)
4) 문제해결 : 단기 결론과 장기 대안을 도출하는 단계(입법과 행정계획, 공동체, 아나키즘 등)

녹색연합 2019년 주요 과제 : 6대 과제와 18대 세부과제

1) 기후 위기와 생존 위기를 부른 '탄소 문명의 전환'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 공포, 폐기물 문제는 한국과 국제 사회의 주요한 환경 문제이며, 그 원인은 일관되게 탄소 중독 문명에서 발생함. 녹색연합은 '문명과 가치의 전환', '에너지 전환'의 관점으로 탄소 몰입의 문명에 문제 제기하며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고자 함

① 과제 1 : 기후 위기 1.5도의 경고, 탈석탄화력

기후 위기는 결국 에너지 전환의 문제임. 녹색연합 기후에너지운동 10년의 전망과 2년의 실천계획을 수립함. 탈석탄화력의 의미있는 변화를 이끔

▷ 탈석탄화력 정책 대응 :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량 조사, 석탄화력 가동 제한과 수명연장 금지, 탈석탄화력과 온실가스 감축 강화 로드맵 촉구 등

▷ 녹색연합 차원의 에너지 위원회 구성, 탈석탄 61인단 캠페인

▷ 생태계 주요 변화 등 기후 위기 적응 과제 : 기후 위기로 인한 한반도 생태계 변화 기록, 고산침엽수 모니터링, 이상기후 대응 등

② 과제 2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요청이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 문재인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목표를 재검토하며, 지역과 현장 중심의 대응을 모색함. 생태적 수용성을 견지한 녹색연합 차원의 대안을 제시함

▷ 생태적 수용성을 견지한 재생에너지 입지 가이드 마련, 지역주민 연대

▷ 2019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여정' 녹색순례

③ 과제 3 : 미세먼지를 멈추는 긴급 행동

생활환경 첫 번째 이슈는 미세먼지라 할 수 있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함.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 현안 해결은 석탄화력과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한 '전환'에서 가능함

▷ 미세먼지/ 대기오염 정책 대응 : 대기오염(VOCs, 발암물질, 특정대기유해 등)으로 인한 피해 대응, 환경권 강화를 위한 생활환경 피해 민원가이드북 제작 등

▷ 환경과 노동의 연대, 미세먼지를 멈추는 '일인 파업' 캠페인

④ 과제 4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중단

2018년 쓰레기 대란은 탄소 중독 문명, 일회용 문명에 대한 심각한 현황을 여실히 보여줌. 폐기물 순환은 '지금, 여기'에서 당장 풀어야 할 과제임

▷ '자원 순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모색

▷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 용기 줄이기

▷ 일회용 없는 서울, 성북구 만들기 : 일회용 없는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

2) 비무장지대, '평화와 생태의 마지막 안전지대'

4.27 판문점선언, 9.19 군사합의, 남북정상회담 등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분위기 조성되는 반면 개발 중심 신경제지도의 급부상. 최근 비무장지대 일원의 급격한 개발

욕구에 대응한 통합적 ‘생태계획’의 필요성. 남북환경협력의 ‘평화와 생태적 원칙’ 수립 등

① 과제 1 : 비무장지대 보전 정책 수립
‘3P’(보전Protection -> 경제적 번영Prosperity -> 평화통일Peace)의 관점으로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 중립수역, 나아가 민통선 등 비무장지대 일원의 보전 원칙을 수립함
▷ 비무장지대 보전 원칙을 위한 남북 공동 환경 가이드라인 마련
▷ 비무장지대 일원 보호지역 지정 근거 법 제정
▷ 평화협정 대비 국제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비무장지대 관리 대책 마련 : 유네스코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등재 기반 마련 등

① 과제 2 : 대인지뢰 전수조사
비무장지대는 남북 공동이 합의한 사항만 우선 추진하고 남측 자체 사업을 최대한 보류하도록 함. 민통선 이남 대인지뢰 지대, 후방지역 대인지뢰 지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성을 국내외 알림
▷ 녹색연합 차원의 지뢰 전수조사
▷ 대인지뢰방지협약 남북한 공동 가입 추진

③ 과제 3 : 비무장지대 일원의 보전을 위한 생태평화포럼
남북 평화의 과정에서 생태 분야는 전혀 고려되지 못함. 각 부처와 지자체는 비무장지대 일원의 다양한 개발사업을 쏟아내고 있음. 접경지역 지자체, 각 부처, 남과 북을 관통하는 비무장지대 일원의 보전 대원칙 수립을 위한 포럼을 제안함
▷ 비무장지대 보전을 위한 범부처 합동 포럼 추진 : 총리실 주관 포럼, 국회 의원모임 등
▷ 시민평화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남측 시민 단위의 공식 논의 테이블 참여
▷ 남북산림협력과 에너지협력에 대한 녹색연합의 역할 자리매김 등

3) ‘이제는 생태복원이다’
개발의 시대는 여전히 계속되지만, ‘이제는 복원’의 과제를 준비해야 함. 지난 시기의 대규모 개발사업인 4대강과 가리왕산 그리고 용산미군기지의 훼손과 오염 복원 사례는 향후 생태계 복원 과제에 상당한 근거를 제공할 것임. 녹색연합 차원이 ‘생태복원’의 의미를 정립함

① 과제 1 : 4대강 재자연화
4대강 재자연화의 관점으로 16개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도출하고 정부 차원의 명실공히 ‘재자연화’ 과정을 추동하도록 함. 2019년, 4대강 재자연화 과정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도록 시민사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함
▷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대응 체계 수립 : 한국환경회의를 중심으로 공동상황실 구성하며,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공동 대응
▷ 4대강 사업 10년 아카이빙 : 백서 제작, 현장 탐방, 캠페인 등

② 과제 2 : 가리왕산 훼손지 생태 복원
가리왕산 재사용 논쟁을 끝내고 전면 복원의 입장을 관철함. ‘온전한 생태복원’의 모습은

어떠한지 일본 나가노 등 국내외 사례를 종합, 정리함
▷ 사회적 합의기구의 '전면 복원' 원칙 관철 : 총리실 주관 가리왕산 사회적 합의기구의 기본 전제는 '전면 복원'임
▷ 산림 복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직 구축

③ 과제 3 : 용산미군기지, '선 정화, 후 공원'
서울의 핵심지역에 위치한 용산미군기지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됨. 지금도 삼각지, 녹사평역 등 기지 외곽에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음. 용산미군기지의 오염 현황 조사, 비용 부담 주체 등 산적한 과제가 있음
▷ 용산공원특별법 개정 : 서울시(지자체), 환경부 등 범부처 TF
▷ 용산미군기지 정화와 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2019년 10대 주요 목표 설정
▷ 민관이 참여하는 용산미군기지 정화위원회 구성, '용산포럼(가칭)' 운영

4) 자연의 권리를 옹호한다, '생명의 이동권'
현재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와 '환경권'의 개념은 인간중심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권리만을 명시하고 있음. 인권을 착취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자연의 권리도 없으며, 자연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은 인권을 확대하는 것과 같음. 생명 존중의 정관을 바탕으로 한 녹색연합은 2019년 자연의 권리를 확장하도록 노력함. '생명의 이동권'의 가치와 의미를 사회적으로 확산함

① 과제 1 : '생명의 이동권' 전국 캠페인
녹색연합은 4대강 사업에 대응한 '물고기 이동권' 전국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음. 나아가 어류-양서류-포유류-조류 등 '생명의 이동권'으로 확대할 수 있음
▷ 2019년 녹색연합 '물고기 이동의 날' 전국 캠페인 : 본부 사무처, 지역조직, 전문기구 협업
▷ 로드킬, 야생 조류 유리벽 충돌 등 대응 : 로드킬 다발구간 현장조사, 생태통로 모니터링, 로드킬 민관협의체 구성 등
▷ 개정 헌법의 자연의 권리 조항 삽입

② 과제 2 : 웅담 채취용 반달가슴곰 구출
현재 전국 32개 농가에 526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웅담 채취를 위해 사육되고 있음. 녹색연합은 2018년 사육곰 3마리를 성공적으로 구출함. 증식금지 조치 -> 곰 매입 -> 보호센터 건립 등의 로드맵 추진하며, 사육곰 산업 종식이 목표임. 'Not for sale', '곰들에게 자유를'
▷ 생츄어리 건설 추진위원회, 곰 재단 등 : 10살 미만의 어린 사육곰 구출과 한국사회 최초의 생츄어리 구축
▷ 불법 증식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마련
▷ 전시관람용 전환 반달가슴곰 모니터링과 관리방안 마련

③ 과제 3 :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산양의 권리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최종 취소를 이끔. 국립

공원의 명실상부한 보전 체계를 확립하며, 산양을 통한 '자연의 권리'를 확장하도록 함
▷ 양양군 환경영향평가(본안) 보완서 대응 :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재구성과 대응,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권고사항(평가서 부동의 권고) 수용 요구, 농성 등
▷ 환경부 고시 취소 소송, '자연의 권리' 원고적격 문제 대응 : 산양 소송, 설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안) 고시 취소 소송, 문화재청 고시 철회 소송 등

5) 녹색주의, '녹색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의 문명을 뒤집는 녹색 대안은 녹색연합의 방향타 역할을 할 것임. 한국사회 환경단체 중 어느 곳도 녹색 대안의 가능성을 열지 못한 상황임. 녹색연합은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 문명인 녹색주의를 상상하며, 녹색 대안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의 장을 준비함

① 과제 1 : 기후 위기 시대 탈탄소 사회를 위한 '2019 그린컨퍼런스'
녹색연합은 자본주의 개정이 아닌 문명의 본질적인 전환을 요구하는가, 녹색연합이 바라는 세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는 여정임. 과거 녹색주의 포럼과 그린컨퍼런스 명맥 부활함
▷ 녹색연합 부서 간 협업으로 진행함, 기획단 구성
▷ 강연, 세미나, 전시, 공연 등 기후 위기 시대 문명의 전환을 위한 주제

② 과제 2 : 'Earth Day 2019'
민간환경단체는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함. 한국환경회의 주관의 지구의 날 행사가 기획 중임.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념비적 캠페인이 되도록 함
▷ 2019년 4월 22일, 'Earth Day 2019' 캠페인 기획과 참여
▷ 향후 '지속가능성', '전환'을 주제로 한 페스티발 기획 등

6)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생태섬, 갈라파고스가 아니다
새로운 시간과 공간 그리고 관계에 대한 개방성을 최대한 확장함. 활동가 중심에서 네트워크 확장으로, 회원에서 시민으로, 녹색연합에서 한국사회 시민운동으로, 국내에서 글로벌 관점과 이슈 대응으로 협업과 확장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활동을 재구성함

① 과제 1 : 녹색연합 분야별, 활동가 네트워크 확장
공동대표, 전문위원, 홍보대사 등 현 네트워크를 최대한 확장하며 협업함. 에너지 위원회, 모금 위원회, 회원 모임 등 분야별 네트워크를 지지하며 검토함. 나아가 한국환경회의, 시민평화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외부 연대 등 다양한 네크워크와 협업함
▷ 전문위원, 홍보대사 추가 영입과 정례 모임
▷ 분야별 위원회, 회원 모임, 시민 참여 프로그램 검토
▷ 한국환경회의, 시민평화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타 연대사업에 녹색연합 공동대표, 처장단 참여
▷ 국제 연대와 연수 등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 확대

② 과제 2 : 녹색연합 신규 사무실 확보
활동가 중심의 공간에서 녹색연합 회원, 시민들이 자유로운 공간으로 전환함. 그린 플랫폼, 회원 놀이터의 개념으로 신규 사무실을 기획하며 확보함
▷ 신규 사무실 확보를 위한 '그린 플랫폼 추진단' 구성
▷ 녹색연합 30주년 전후로 입주 가능한 기획

③ 과제 3 : 홍보, 모금, 회원 확대
녹색연합의 활동과 성과를 시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히 홍보하며, 홍보는 모금으로, 모금은 회원확대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사례를 시도함
▷ 녹색시민의 확산과 성장, 대중모금 캠페인과 연계한 시민참여 활동 기획
▷ 콘텐츠 회원확대 : 녹색연합 주요 과제를 적극 홍보하며 시민 참여와 회원 확대로 연계함
▷ 녹색연합 가치에 동참할 지지그룹 확대 : 28주년 창립기념행사, 기업협력 등